

돼지유통정책

김 동 근

(농림수산부 축정과장)

앞으로는 산지에서 도축·해체된 지육과 부위별 대포장육 (Box Meat)도 대도시 도매시장과 공판장에 상장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육류등급제도 앞당겨 실시할 방침이다.

1. 머리말

우리나라의 주요 육류소비량은 1988년을 기준으로 쇠고기 14만2천톤, 돼지고기 42만5천톤, 닭고기 14만9천톤으로서 총 71만6천톤이고 연간 1인당 평균 소비량은 쇠고기 3.4kg, 돼지고기 10.1kg, 닭고기 3.5kg이다. 이와같은 소비수준은 10년전인 1979년에 비하여 총량면에서 1.7배가 신장한 것이며, 1인당으로는 쇠고기가 1.1배, 돼지고기가 1.7배, 닭고기가 1.5배로 각각 늘어난 것이다.

이와같이 육류수급량은 늘어나고 있으나 유통시설의 확충과 유통체제의 개선은 이를 뒤따르지 못함으로써 생산자의 출하 편의 증진, 육류의 수급조절 및 안정적 소비기반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육류 유통개선에 역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양돈과 관련된 사항을 간추려 소개하고자 한다.

2. 유통시설의 확충

육류 유통의 대표적인 시설로는 축산물 도매시장, 축산물 공판장, 도축장 및 식육유통센터와 정육점을 들 수 있다.

가. 축산물 도매시장

축산물 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근거를 두고 서울특별시·적할시장이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고, 지정도매인을 두어 관리·운영케 하는 시장으로서 '89년 12월 현재 전국에 8개 도매시장이 있다. 서울특별시 관내의 우성농역·협진식품, 부산직할시의 동원산업·태강산업, 대구직할시의 신흥산업, 인천직할시의 대신산업, 광주직할시의 삼호축산, 대전직할시의 대양식품이 그것이다.

서울의 2개 도매시장(우성·협진)의 경우 1일 평균

'90년도 정부의 양돈정책을 알아본다.

처리물량이 '79년의 1천1백두 수준에서 '88년에는 4천 6백50두 수준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나. 축산물 공판장

축산물 공판장도 역시 농안법에 근거를 두고 축산업 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의 장이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개설·운영하는 시장으로서 '89년 12월 현재로는 전국에 1개소, 즉 서울특별시 관내의 가락동 축협공판장이 있다. 시설의 이전·확장으로 1일 평균 처리두수가 '79년의 3백30두 수준에서 '88년에는 2천3백 30두 수준으로 2천두가 증가하였다.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축산물 공판장을 연차적으로 늘려 나간다는 방침아래 '88년도 사업비를 국비예산과 축산진흥기금 예산을 확보한 바 있었으나, 여건이 갖춰진 지역에서의 적지 확보가 되지 않아 실현시키지 못하였다. '89년에는 전라남도 나주시 관내에 개설하기로 하고 적지 확보 도시계획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90년에도 1개소를 영남권에 개설할 계획으로 소요 예산을 확보하여 놓고 있다.

다. 도축장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근거를 두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수축의 도살·해체 장소로서 소요시설의 구비정도에 따라 특급, 1급, 2급으로 급수를 달리하고 있다. '89년 12월 현재 도축장 수는 모두 180개소이며 (특급 64개소, 1급 99개소, 2급 17개소), 도축장에 대하여는 증설을 억제하고 가급적 권역화 하여 정비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라. 식육유통센터

생산자 스스로가 자기가 키운 가축을 도살·해체·가공·비축·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운영함으로써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87년부터 정부가 축협조합을 지원·설치해하고 있는 유통시설이다. 호남권에 목포축협 식육유통센터,

영남권에 거창축협 식육유통센터, 중부권에 논산축협 식육유통센터가 설치·완료되었다. 앞으로도 확대 증설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권역별로 설치 완료된 위의 시범적 식육유통센터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자리잡고 발전해 나갈 것인가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다음 문제점을 보완 추진하기 위하여 '90년도에는 신규설치를 유보하기로 하였다.

마. 정육점

'89년 12월 현재 전국의 정육점 수는 3만7천89개소이며, 이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다. 정육점의 개설에 관한 근거법이 농림수산부소관이 아니어서 이의 운영개선에 어려움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축산물 종합판매장으로 발전시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유통체제의 개선

우리나라 돼지 및 돼지고기의 대표적인 유통체제는 산지에서의 도축 및 그지역 정육점으로의 지육공급, 산지에서의 도축 및 대도시 소비지 정육점으로의 지육공급 및 산지로부터 대도시 소비지 도매시장·공판장으로의 생축 출하, 도축·상장후 정육점으로의 지육공급으로서 어느 경우에 있어서 정육점 단계에 이르는 돼지고기의 형태는 지육이다.

오늘날의 돼지고기 유통체제가 그와같은 형태로 정착된 데에는 그 나름대로의 현실적인 당위성을 갖고 있겠다. 이로 인하여 문제시 되고 있는 생축 수송시의 감량손실, 특히 생산과잉시 도매시장·공판장에서의 장기 차상계류에서 오는 용차비 부담증가와 감량·압사 등의 손실, 온도체(溫屠體)상장 및 이의 수송에서 오는 육질 저하 등의 해소를 위하여도 그렇다. 우리나라 축산업 및 육류 유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도 그와같은 지육형태의 유통체제는 시급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 정육 유통으로의 점진적 전환 유도

지금까지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생축으로 출하하여 상장을 위탁하면 위탁받은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이를 도축·해체하여 지육을 상장하여 왔다. 앞으로는 산지에서 도축·해체된 지육과 부위별 대포장육(Box Meat)도 대도시 도매시장과 공판장에 상장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현행 도매시장 상장 지육이 온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지에서 처리·냉장된 지육이 상장되는 경우 중량 및 육질의 평가방법이 아직은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앞으로 육류등급제의 시행을 통해 그러한 방법이 강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지처리지육 및 대포장육 상장의 출하자 및 구입자에 대한 이해득실이 아직은 분석된 바 없으나, 그러한 체제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게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서는 첫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까지의 장거리 수송에서 오는 제반 손실을 줄이고, 둘째 대소비지에의 육류공급에 있어 병목 현상을 유발하고 있는 도매시장 내의 도축·해체 적체와 주변 환경오염을 완화하며, 셋째 부위별 정육유통의 확대를 촉진시킴으로써 수출부위와 비수출 부위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여 돼지고기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넷째 산지 도축장의 경영을 활성화 하여 지역의 고용증대에 이바지 하며, 다섯째 육가공업의 발전을 촉진

시킬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육류등급제 시행 추진

육류등급제는 앞서 언급한 지육 및 정육 유통체제로의 전환에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육류의 광역화 유통에 있어 거래 당사자간에는 물건을 직접 보지 않더라도 그 물건을 설명할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육류등급제는 규격화와 육질 개량을 촉진함으로써 돼지고기 수출확대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육질에 따른 차등가격 판매에 따라 소비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와같은 역할과 효과가 기대되는 육류등급제는 가급적 앞당겨 실시한다는 정부의 방침아래 한국축육개발협회에서 제도시행의 준비를 추진중에 있다.

4. 맺는말

육류유통은 양축가가 애써 생산한 가축이 소비자에게 축산물로서 가공 전달되는 과정으로서 그 제도는 생산자, 유통중사자, 소비자 모두에게 편익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마련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1990년의 돼지고기 유통시책이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 정착되어 갈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할 것이며, 업계의 협조적인 노력 또한 기대하는 바이다. ■